

사설

경희의 가치 실현하는 교양 개편 필요

교양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후마니타스대학에 따르면, 배분인수 강좌 분포 비율은 인문 사회 분야 58.3%, 자연과학 분야 29.73%로 큰 편차가 있었다. 교양과목이 한쪽으로만 편중돼 원하는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는 불만을 남들할만한 수치였다.

후마니타스 대학이 설립됐던 당시 서울권 대학들은 앞다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사람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전공분야와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라는 신념 아래 인문학을 기반으로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대학의 교양강의 중 다수가 인문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다.

하지만 설립 후 10여년이 지나

학생들이 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의를 원하는 현실에서 후마니타스의 교양강의가 한쪽 분야에 집중돼 운영되는 것은 아쉬운 지점일 수 있다. 더욱이 후마니타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인문학에 더해 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결국 그 가치에 한발자국 다가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양성적이 서울권 타 대학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는 것 역시 아쉬운 지점이다. 단순히 ‘짤’ 성적 이 쉽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학점의 중요도가 눈에 띄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도한 성적 제한은 오히려 교양 학습에 있어 부작용을 낳을 여지도 있다. 현재의 성적 제도는 교양 강의마저 과도한 경쟁의 영역으로 만들어 후마니타스가 지향하는 애초의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학

생사회의 주된 의견이다. 이에 55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교양 과목 절대평가’ 제도를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미 연세대와 고려대는 교양과목에 한 해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학교가 절대평가를 시행하니 우리도 절대평가를 도입하지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교양강의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성적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

후마니타스는 4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내년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해이다. 5월 셋째 주를 시작으로 총학생회, 대학생 자치위원회, 교내 언론 등으로 구성된 후마니타스 교육개편 TF팀이 결성됐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후마니타스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움직임은 교양 강의의 다양성, 과도한 성적 제한 등에 대한 학생 사회의 생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마니타스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의 장을 개최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된 이후, 후마니타스의 교수와 강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도 있다. 이들은 경희의 정신을 지닌 인재들을 길러낸 스승이기 때문이다.

내년에 개편될 후마니타스 교육 과정은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개편된 교육과정은 결국 후마니타스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것이다.

세시봉

꿀벌 대소동



양세빈 기자
abok29@khu.ac.kr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단 내음을 품으며 꽃이 피어날 때 주변으로 조그마한 꿀벌이 모이기 시작한다. 꿀벌은 하루에도 수천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새 생명을 틔운다. 그러나 현재 성급하게 피고 지는 꽃 옆엔 더 이상 꿀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진 데 이어 이번 월동 이후 160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실종됐다.

이상고온으로 따뜻해진 겨울은 벌들이 동면에 들어갈 시기를 놓치게 했고, 꽃이 피고 지는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벌들이 수분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살충제의 남용은 이듬해 일할 벌들마저 사라지게 했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호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꽃가루와 꿀의 원천인 밀원은 국내 기준으로 1970년대보다 33만 헥타르 줄었다. 꿀벌들이 지구에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된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간도, 지구 생태계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

유엔은 식량 생산과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들은 도시 양봉을 장려하고 벌 보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에게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밀원식물 심기, 유기농 식품 먹기 등 꿀벌의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꿀벌 대소동>에서 꿀벌들은 두 번의 대소동을 벌인다. 인간에게 모든 꿀을 회수하기 위한 첫 번째 대소동이 일어난다. 더 이상 꿀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 벌들이 인간 세상에 나오지 않자, 온 생태계가 위험에 빠진다. 이를 본 꿀벌들은 유일하게 남은 꽃을 찾아 그 꽃가루를 온 세상에 뿌리며 지구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대소동을 일으킨다.

<꿀벌 대소동>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꿀벌들의 첫 번째 대소동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꿀벌의 ‘실종’을 지켜만 보기보다 꿀벌들의 두 번째 ‘대소동’을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줄어드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힘이 되는 도움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그저 대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 한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다섯 번의 학기 동안 장애학생들의 수업 시간 눈과 귀가 되어온 이가 한 말이다.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간에는 일대일 매칭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로 활동 중인 학생 중에는 추가 보상 없이도 여러 장애학생의 학업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이들이 있다. 신체적 결핍이 만든 동등하지 못한 학습 환경의 틈을 채우기로 한 이들에게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단순한 근로 활동의 의미가 아니었다.

이런 그들에게 학교와 구성원은 과연 친절할까. 모두가 친절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한계는 남아있다. ‘배리어프리’라는 이름

아래 캠퍼스 속 눈에 띄는 장애물은 허물어졌지만, 장애학생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여전하다.

하지만 근로 활동의 일한인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의 특성상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해당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애학생의 학습 질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적 배려, 전문 인력 배치,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 등이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철관과 교재, 교수님의 목소리와 시청각 자료를 당연하게 보고 듣는 것은 사실 비장애인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이것들이 당연해지기 위해 곱절의 힘을 들이는 77명의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를 다시 떠올려야 할 때다. 스크립트, 센스리더, 한소네 등 장애학생의 학습 보조기기 지원에 아낌이 없음을 물론, 학습 보조기기보다 든든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에게도 지원과 배려가 전달되길 바라본다.



만평 여전히 모집 중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군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	----------------	----------------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